

2014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성경의 중심—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메시지 1

갈라디아서

(1)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로 말미암아 악한 이 시대에서 구출받음

성경: 갈 1:3-4, 11-16

- I.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하고 종교적인 시대로부터 빛나간 믿는 이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 갈 1:3-5, 엡 1:5, 9, 11, 22-23, 히 10:5-10, 롬 12:2, 4-5, 갈 6:15, 골 3:10.
- A. 시대는 사탄의 체계의 한 단면, 한 방면, 현재와 현대의 유행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된다 — 엡 2:2, 요일 2:14-15.
- B. 이 책의 문맥에 따르면 악한 이 시대는 종교적인 세상, 세상의 종교 체계, 곧 유대 종교를 가리킨다. 이 시대는 문자적인 형식이 되었고 그 영을 끄는데 있어서 죽게하며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소통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투게 한다 — 갈 6:14-15, 1:6-16, 고후 3:6, 빌 3:2-3, 요 16:2.
- C.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주신 목적은 유대 종교, 곧 악한 이 시대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비교 딤페전 1:3-4) 하나님의 선민을 율법의 보호로부터 해방하고(갈 3:23) 그들을 양우리에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요 10:1, 3, 16).
1. 아가서에 있는 예표의 계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추구자를 그녀의 영 안으로 인도하신다. 그녀는 자신의 영 안에서의 그분과의 교통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곳을 어떻게 떠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는다 — 아 1:4 하-8.
 2. 양 떼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풀을 먹이고 목양하며 먹이는 장소인 교회이다 — 요 10:16, 행 20:28, 벰전 5:2, 시 23.
 3. 주님의 추구자는 그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주님을 추구했지만 주님은 그분의 구원받은 죄인들이 다만 그들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는 것을 관심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은 교회들을 얻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여 이러한 교회들의 본질이 새 예루살렘의 완결을 위한 전조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롬 5:10, 계 1:11-12, 엡 1:22-23, 계 19:7-9, 21:2.
- D.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을 통해 (신약)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아 유대종교적 체계를 가진 오늘날의 타락한 기독교계의 악한 이 시대를 이겨야 한다 — 행 2:42, 딤페전 1:3-4.
- E. 유대교는 땅에 속한 축복들을 가진 땅에 속한 약속들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산출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축복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측량못할 풍성들의 총체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가지고 있다 — 창 12:2, 갈 3:14, 엡 3:8, 1:3, 눅 12:21, 계 2:9, 고후 6:10, 엡 3:19 하.

1.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곧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한다 — 민 6:23-27, 고후 13:14.
 2.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우리의 측량못할 풍성한 생명 공급이신 그 영을 받을 수 있다 — 눅 11:1-13.
 3.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풍성하게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으로 다른 이들을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충만을 산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눅 12:21, 계 2:9, 고후 6:10, 엡 3:19 하.
- F. 유대교는 문자로 된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을 가지고 있다 — 롬 8:2, 히 8:10, 롬 2:28-29, 5:20.
1.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주요 노선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차적인 노선으로 주신 율법의 위치를 잘못 두었고, 시대적인 율법 준수를 잘못 적용했으며 물질적인 할례를 잘못 해석했고 거룩한 음식을 지나치게 왜곡했다 — 롬 5:20, 마 11:28-30, 골 2:11-12, 갈 5:6, 6:15, 행 10:11-16, 34-35.
 2. 옛 언약, 곧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사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며 사람을 폭로하고 사람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솔한다 — 시 78:5, 119:88 하, 창 1:26, 롬 3:19-20, 갈 3:23-25, 요 10:9-10.
 3. 율법에 속한 옛 언약은 하나님의 사진이지만 은혜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인격이다 — 요 1:16-17.
 4.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서 사람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로 사람을 공급하여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게 한다 — 고전 15:10.
 5.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진의 인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며 우리가 영에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성취하신다 — 겔 36:26-27, 롬 8:2, 4, 6, 10.
 6.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으로 넣으시며 이 생명은 하나의 법, 곧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원칙이다 — 히 8:10, 롬 8:2.
 7. 본질적으로 이 법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며 기능에 있어서 이 법은 우리를 신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온갖 기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 롬 8:10, 6, 11, 28-29.
- G. 유대교는 중재하는 제사장들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이들이 거룩하며 왕같은 제사장 체계가 될 제사장들이다 — 계 1:5 하-6, 2:6, 벰전 2:5, 9.
- H. 유대교는 물질적인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신약에서 성전은 영적인 집, 곧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다 — 엡 2:21-22.
1. 유대교 안에서 경배자들과 경배 장소는 두 가지 분리된 것들이었지만 신약에서 경배 장소는 경배자들이다 — 요 4:24, 고전 3:17, 고후 6:16, 행 2:46, 5:42.
 2. 성전으로 예표된 아버지의 집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선민으로 조성된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이다 — 요 14:20, 23, 딤편 3:15, 계 21:3, 22.

II.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종교와 대립된다 — 갈 1:11-16.

- A.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살아있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한다. 이것은 사람의 종교와 대립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우리 자신을 개선한다면 그것은 종교다.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가장 가깝고 친밀한 접촉 안에서 그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 고후 2:10.

- B.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어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하여(요 17:3, 3:16)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요 1:12, 갈 4:5-6).
- C.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 17:5),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 17:8).
- D. 성경의 핵심 중점은 실행들이나 교리들이나 규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고 그분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 고전 15:45 하, 고후 3:17, 빌 1:19, 갈 6:18.
 - 1.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종교나 전통을 위한 여지가 없고 오직 그분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만이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살아있는 인격만을 관심하신다 — 골 1:18 하, 2:16-17, 3:10 하-11, 막 9:7-8.
 - 2. 교회 생활의 실재이며 내용이신 이 살아있는 인격이 없으면 심지어 교회 생활도 전통이 된다. 교회는 이 인격에 속한 몸이며 그분의 충만과 그분의 실지적이고 살아있는 표현이다 — 엡 1:22-23, 3:8-11, 16-19.

III.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인격을 밝혀주고 계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 갈 1:15 상, 16 상, 고후 3:14-17, 4:3-6.

- A.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더 내적이며 주관적인 계시를 받을 수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사실적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더 사실 때 그분은 더욱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 곧 모든 것을 포함한 생명 주시는 영의 축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의 실재가 되실 것이다 — 갈 2:20, 3:14.
- B. 만일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영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도의 영과 분위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며 우리 안에서 형태를 이루시게 될 것이다 — 갈 1:16-17, 2:20, 4:19.
 - 1.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관념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 영적이거나 혹은 육체적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관념은 너울이다. 이러한 내적인 계시는 빛비춤을 받은 우리의 생각을 통한 우리의 영 안에 있다 — 고후 3:14-15, 4:4, 엡 1:17-18, 눅 24:45.
 - 2.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돌이킬수록 이 시대의 신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존재 안에서 여지를 더 잃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빛의 비춤 아래 있음으로써 이 살아있는 인격에 대한 내적인 계시를 더 받게 될 것이다 — 고후 3:16, 18, 4:4, 비교 마 4:8-11.
 - 3.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관심하고 우리의 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비추시고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이다 — 엡 1:17, 3:5, 비교 계 1:10, 2:7, 4:2, 17:3, 21:10.
 - 4.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기도로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 엡 6:17-18, 시 119:15.
- C.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로 충만해야 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서 형태를 이루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 누림으로써 새 창조물이 되어야 한다 — 갈 6:14-15.
- D. “우리가 관념들을 내려놓고 마음을 주께 향하고 영에 주의하고 말씀에 시간을 쓴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고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뤄갈 것이다. 매일매일 그는 우리에게 더 큰 누림이 될 것이다. 결국 이 살아 있는 인격은 우리를 실재적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 것이다. ...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바울의 부담과 오늘날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충만히 받는 위치에 도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과,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48-49 쪽).